

‘파이널A권 도약’ 광주FC, 전북 잡고 연승 달린다

19일 K리그1 13라운드 맞대결 울산 이어 ‘난적’ 현대와 연전 체력 변수 속 이정호 지략 주목 최근 10경기 연속 실점은 과제



‘디펜딩 챔피언’ 울산 HDFC를 상대로 화끈한 화력을 선보이며 승리를 챙긴 ‘돌풍의 팀’ 광주FC가 이번에는 ‘난적’ 전북 현대모터스를 상대로 연승에 도전한다. 9위에서 6위로 도약하며 파이널A권 진입에 성공한 가운데 상위권까지 노리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오는 19일 오후 4시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울산과 하나은행 K리그1 2024 13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일정 순연으로 주중에도 경기를 치르며 다시 4일 간격 경기에서 나서는 이정호호다.

광주는 지난 15일 안방에서 열린 울산과 8라운드 순연 경기에서 2-1 신승을 거뒀다. 전반 초반부터 거센 공세에도 불구하고 상대 수비의 육탄 방어에 저지 당했는데 후반 들어 박태준과 이강현의 연속 중거리포로 허를 찌르며 승점 3점을 챙겼다.

이날 승리로 광주는 올 시즌 5승 7패(승점 15·득점 21)를 기록하며 파이널A마지노선인 6위까지 뛰어올랐다. 6연패 기간 최하위인 12위까지 추락하며 입었던 충격을 완벽하게 극복한 모습이다.

특히 새로운 공격 옵션을 찾은 것이 공



광주FC가 19일 오후 4시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전북현대모터스와 하나은행 K리그1 2024 13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광주FC 이강현과 박태준이 지난 15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울산HDFC와 8라운드 순연 경기에서 득점을 합작한 뒤 기뻐하고 있다.

정적이다. 광주는 울산을 상대로 측면에서 중앙으로 밀어주고 다시 밀어준 뒤 중거리슛을 때리는 패턴으로만 두 골을 성공시켰는데 이 루트의 중심에 박태준과 이강현이 있었다.

박태준의 발끝이 드디어 터진 점이 대단히 긍정적이다. 박태준은 올 시즌 9경

기에서 공격포인트를 신고하지 못하는 불운에 빠진 상황이었었는데 10번째 출전에서 1득점 1도움을 기록했다. 울산을 상대로 후반 13분에는 정호연의 패스를 받아 직접 마무리 지었고, 후반 36분에게는 이강현에게 중거리 기회를 만들어줬다. 측면 파괴력도 날이 발전하고 있다.

문민서와 김한길, 엄지성 등이 활발한 활동량으로 상대의 체력을 소진시킨 뒤 정지용과 가브리엘이 출격해 허점을 공략하는 패턴이 힘을 더하고 있다.

다만 올 시즌 개막전에서 무실점 승리를 거둔 뒤 11경기 연속 실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체력적인 부담까지 극복해

야하는 과제를 안았다. 이정호 감독은 적절한 출전 시간 안배로 체력을 조절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전북전에서 상대보다 부족한 체력을 극복한 지략이 주목된다.

이정호 감독은 울산전 승리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번 경기에서 또 실점을 했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다”며 “개선할 부분이 너무 많아 보인다. 아직 갈 길이 멀고 운이 좋아서 이긴 것 같다”고 냉정한 평가를 남기며 수비 보안을 약속했다.

반면 전북은 올 시즌 2승 4무 6패(승점 10)에 그치며 최하위인 12위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3연패에 빠지는 등 4경기 무승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고, 단 페트레스쿠 감독과 결별하며 공석이 된 사령탑 자리도 한 달 넘게 채우지 못하며 박원재 코치가 대행을 맡고 있다.

앞선 데 덮친 격으로 보아텡이 직전 경기에서 퇴장을 당해 출전하지 못하고 비니시우스와 에르난데스, 김태환, 홍정호 등이 부상으로 이탈했다. 하지만 박진섭이 최근 부상에서 돌아왔고 송민규와 문선민, 안현범, 한교원 등의 측면 파괴력이 돋보인다.

전북의 첫 승 제물 역시 광주였다. 광주는 당시에도 상대가 침체된 분위기에서 첫 승을 헌납했던 만큼 이번 경기 승리와 함께 설욕이 간절하다. 광주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최고 4위까지 도약할 수 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2024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 19일 영암 F1경주장서 열린다

슈퍼레이스 등 100여대 참가 서킷텍사·버블쇼 등 행사 다채

‘2024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이 오는 19일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100여대가 참가하는 가운데 국제대회로 치러진다.

전남도도가 지원하고 ㈜슈퍼레이스가 주최하는 이번 카니발에는 국내 모터스포츠를 대표하는 2024 오네(O-NE)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슈퍼 6000, GT/GT4 클래스, 프리우스 PHEV, 루벡스 M 클래스)을 비롯해 국제 대회 레디컬 컵 아시아와 바이크 대회인 코리아 트로페오 슈퍼스포츠 400 경기가 함께 열린다.

이번 대회에서는 자동차 경주대회의 스타일과 박진감을 만끽할 수 있도록 주행거리 확대와 피트 스톱(Pit-Stop)을 적용했다.

국내 최고 등급인 ‘슈퍼6000’은 436마력 6200cc 엔진을 탑재한 아시아 유일 스톱카 종목이다. 올해 9라운드 중 유일하게 피트 스톱 방식으로 운영되며, 주행 거리도 100km에서 160km로 60km를 늘렸다. 70분의 주행시간 동안 레이스 상황에 맞춰 한 차례 이상 급유 또는 타이어교체를 해야 되는 특별 규정으로 이번 라운드 우승자는 최대 5점 이상 포인트를 추가 확보할 수 있어 치밀한 전략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레디컬 컵 아시아는 세 종류의 경주용

전용차량이 참가하는 종목이다. 배기량이 가장 높은 SR10은 425마력 2300cc 엔진에도 불구하고 공차 중량이 725kg으로 가벼워 제로백(정지 상태에서 100km/h 도달 시간)이 2.4초 밖에 걸리지 않는다.

코리아 트로페오는 모터사이클 종목이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400cc 미만급 25대가 참가하며 10바퀴를 빠르게 주행한 순서로 순위가 결정된다.

전남도는 가정의 달을 맞아 메인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한다. 또 관람객이 참가 선수 및 차량을 가까이 볼 수 있는 ‘그리드 워크’와 함께 서킷텍사, 서킷 버스투어, 경품 이벤트, 버블쇼, 가상레이싱 등 모터스포츠를 주제로 가족이 함께 즐기는 차별화된 행사를 준비했다.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은 지난 2014년부터 아시아권 문화 교류 및 국내 모터스포츠 세계화를 위해 ㈜슈퍼레이스가 매년 개최하고 있다.

대회 관련 정보는 공식누리집(www.super-race.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네이버에서 예약하거나 대회 당일 현장에서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 19일 진행되는 결승전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 스포츠에서 볼 수 있으며, TV 생중계는 19일 오후 1시40분 주관 방송사 KBS 2TV에서 시청할 수 있다.

최동한 기자

‘슈퍼 백업’ 홍종표 “어떤 위치에서든 내 역할 하겠다”

15일 두산전 멀티히트... 2득점

KIA타이거즈 홍종표(사진)가 프로 데뷔 5년 만에 빛을 보고 있다. 3할 5푼을 웃도는 타율에 2루수와 유격수, 3루수까지 내야 어떤 자리에 투입해도 제 몫을 하는 ‘슈퍼 백업’으로 주목된다.

홍종표는 지난 15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두산베어스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5차전에서 3타수 2안타 1볼넷으로 2득점을 생산하면서 KIA의 8-4 역전승에 힘을 보탤다.

홍종표는 이날 경기를 마친 뒤 “팀이 연패 중이었는데 경기 전 선수단 미팅에서 결과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 플레이를 하면서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자고 했다”며 “선발 출장했기 때문에 미팅에서 했던 말을 더 명심하며 경기에 임했다”고 밝혔다.

홍종표는 이날 손목 통증으로 결장한 김도영을 대신해 8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장했다.

2회초 2사 1·2루에서 조수행의 강습 타구 바운드를 잘못 판단하며 선제 실점을 허용했지만 직후 절치부심하며 타격에서 맹활약했다.

그는 “초반부터 아쉬운 수비가 나와 어떻게든 만회를 하고 싶었다”며 “동료 선수들이 지나간 것은 신경 쓰지 말고 더 자신감 있게 하라고 격려해 줬고, 스스로도 타석에서 더 집중력 있게 임했다”고 설명했다.

홍종표는 2회말 2사 1루에서 첫 타석에



KIA타이거즈 홍종표가 지난 15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두산베어스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5차전에서 4회말 2루타를 때린 뒤 질주하고 있다.

KIA타이거즈제공

들어서 좌전안타로 득점권 기회를 창출했고, 4회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는 3루 선상을 꿰뚫는 2루타를 때린 뒤 나성범의 적시타에 홈을 밟았다. 또 7회말 2사 1루에서는 볼넷을 얻어 출루한 뒤 박찬호의 안타에 좌익수 조수행의 포구 실책이 나오자 재치로 홈을 파고들어 득점을 추가했다.

그는 “첫 타석부터 타격감이 나쁘지 않아 유리한 볼 카운트에서 자신감 있게 타격했다”며 “멀티안타까지 기록하며 팀 승리에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뿌듯함을 드러냈다.

이범호 감독 역시 홍종표의 알토란 같은 활약에 칭찬을 보냈다. 경기 후 이 감독은 “선수들로부터 가장 값진 스승의 날 선물을 받았다”며 “홍종표가 하위 타선에서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다. 날씨가 좋지 않았음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총평을 남겼다.

이에 대해 홍종표는 “지금은 1군에서 백업으로 경기에 출전하고 있다”면서도 “지금처럼 매 경기 잘 준비해 어떤 위치에서든 내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규빈 기자